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컴퓨터 원격진료시대

(의료)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의사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시대가 열렸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유태우 교수팀은 23일 이 병원 원격진료센터와 한국통신 본사 의무실을 연결하는 원격진료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원격진료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 청진기를 갖춰 심장박동 등의 진찰과 각종 혈액검사, 귀·눈 등의 진찰도 가능하다.

항암 삼계탕 · 오리고기 시판

(건강)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18일 항암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공액화리놀산(지방산의 일종)이 함유된 삼계탕용 닭과 오리 생산기술을 개발, 식품업체인 화인코리아에 이전시켜 9월 중순부터 본격 생산, 판매한다고 밝혔다.

직업훈련생등 900명 모집

(모집) 서울시는 8월10일까지 직업훈련생 및 고용촉진훈련생 900명을 모집한다. 15~64세 서울시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보호대상자 등은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훈련 직종은 자동차정비, 전기용접, 패션디자인, 미용 등 19개 직종. 훈련비용은 무료이며 수료 후에는 취업도 알선해 준다. (02)3707-9373

칠월칠석 과학문화축제

(축제) 우리의 전통명절인 칠월칠석이 과학문화축제로 다시 태어난다. 한국과학문화재단과 천문우주기획은 8월17일 칠석(음력 7월7일)을 맞아 다음달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칠석축제를 개최한다. 행사당일 오전 9시30분부터 KBS 제1라디오방송을 통해 견우와 직녀성 찾는 방법도 전국에 생중계된다.

한강 좋은영화 감상회

(영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27일부터 8월5일까지 한강시민공원과 여의도공원에서 '한강 좋은 영화 감상회'가 열린다. 매일 저녁 8시 30분부터 무료로 상영. 영화상영에 앞서 세종국악관현악단, 임학성 재즈 밴드 등이 나와 오후 7시50분부터 음악공연도 갖는다. (02)3707-9416

매주 목요일 '혁신의 시대'

(방송) EBS가 올 초부터 방영하고 있는 '다시 보는 20세기' 프로그램중 새 시리즈물인 '혁신의 시대'를 22일부터 8월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방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에서 제작된 밀레니엄 다큐멘터리. 블랙파워(흑인운동)·패션·여성·건강·무기·선박 등 6가지 주제가 다뤄진다.

부패고리 끊을수 없나

옷로비-도지사부부 수뢰등 '뇌물중독증' 심각

부패방지법 절실…시민 신고정신 고취도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인가'

고관집 거액 도난사건과 장관 부인 옷로비 의혹사건에 이은 임창렬 경기지사 부부 수뢰사건은 또한차례 국민을 허탈과 분노에 빠뜨렸다. 몇몇 지방 단체장들도 검찰소환이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이젠 중하위직 공무원이나 민간부패는 이미 애깃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다.

지난 6일 월드리서치는 규칙을 잘 지키면 자기만 손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60%에 달했다는 사실과 함께 가장 시급히 추방해야 할 사회병폐로 부정부패를 꼽은 사람이 62%나 됐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리서치 앤 리서치사도 6월에 응답자의 92%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 심각한 정도라고 응답한 여론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20일자에 '한국 부패스캔들은 최상류층의 탐욕탓'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쯤되면 '부패공화국'이라는 자조를 할만도 하다. 도대체 끝도 없고 대책도 보이질 않는다.

지난 16일 청와대 대변인은 "부패구조는 국가 존망의 문제"라며 "부패구조 청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몇 십번도 더했던 말이다. 속을대로 속아서인지 이제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과연 부정부패의 고리는 끊을수 없는 것인가. 전문가들은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만큼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잇달아 열린 부패관련 학술회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학자와 시민단체 지도자들은 '한국의 부패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으며 구체적이고 시급한 부패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의 부정부패는 조직원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조직 부패형'인데다 부정부패를 싹틔우는 '연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뇌물 중독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건이 있을 때만 호들갑을 떠는 '냄비근성'을 버리고 분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의식개혁이나 경조사비 안받기, 공직문화 개선책 등의 방안만으로는 미흡하다. 제도적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시민의 원칙 준수와 고발정신, 행정기관과 기업의 정보공개 및 시민의 행정 참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지나치게 관대한 국민정서도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6월말 한국을 방문했던 부패문제의 세계적 권위자인 고든 튤럭 교수(미 애리조나대)는 "한국의 부패수준이 일본이나 대만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축소 △야당이나 언론의 효과적인 감시 △윤리 확립 등의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홍콩 미국 영국 등은 엄격한 부패방지법을 정해 공직자 부패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가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각히 반성해야 한다.

〈잡아함경〉에 "곧고 바른 것을 길(道)이라 하고 두려움 없는 곳을 목적지라 한다. 고요하고 한가한 수레를 타고 진실의 가르침을 덮개로 삼고 부끄러움을 고삐로 삼으며 바른 생각을 재갈로 하여 지혜를 훌륭한 말몰이 삼고 바른 소견을 안내자로 삼으라"는 말씀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생각으로 악업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셨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우리 모두의 공업(共業)이다. 경쟁력 있고 맑은 사회 건설은 우리 모두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가족 불안정-장래불투명-부패

한국 사회불안 3대요인

'신창원 사건' 부패현실 증거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국가체제 최고의 위기상황을 100(내란)으로 보고 국민이 체감하는 위기 정도를 수치화하는 측정법을 개발해 조사한 결과 현재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수준은 70.2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79.4에 비해 낮아졌지만 폭동이 우려되는 '심각한 위기'(81 이상)에 여전히 근접해 있는 수치로 비교적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다.

분야별로는 '가족 불안정'이 78.5로 가장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조사됐다. 이혼율이 20%가 넘고 아동유기, 가출, 가정폭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위로는 '장래 불투명'(75.3)이 꼽혔는데 비행학생이 늘고 있는데다 대졸 취업률과 신분상승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위는 '부패 및 정책불신'(71.6)으로 계속돼 온 정치혼란에 각종 비리사건, 신창원 사건으로 드러난 사회부패상등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가지가 결국 한국 사회불안의 3대요인인 셈이다.

보건사회硏 '위기수준' 측정

분야	사회위기지수 98년5월	사회위기지수 99년5월
대외불안 경제불안	77.6	46.3
부패및 정책불신	100.0	71.6
생활불안정	77.9	70.4
사회 갈등	64.3	69.4
가족불안정	89.3	78.5
문화적 부패	49.1	49.1
보건복지부 수준	47.3	61.6
개인적 불안정	57.3	64.6
불투명한 장래	75.3	75.3
총체적사회위기지수	79.4	70.2

지구촌 인구 60억명 돌파

UN "인구억제책 시급"

지구상의 인구가 마침내 60억을 돌파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오전 0시24분(한국시간 오전 9시24분)경 그리니치 표준시를 기준으로 18일 자정 직후 60억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세계인구는 39년만에 2배로 늘어나게 됐다. 또 세계인구가 87년 7월11일 50억명에 이른 이후 불과 12년만에 60억을 돌파하게 됐다.

세계 인구는 1초에 3명씩 늘어난다. 5명이 태어나고 2명이 죽는 것. 세계인구는 이후 2015년까지 매년 1% 이상 증가해 2013년에는 70억명에 도달할 예정이며, 2027년에는 80억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상무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최다국은 중국(12억5천만명)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이런 인구증가 속도는 환경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탱되기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2050년의 인구를 80억명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론

해뜨면 어둠은…

성기서
〈서원대 교수〉

지난 7월 17일 "알선수재혐의"로 전격 구속된 임창열 경기지사와 부인 주혜란 씨 부부의 이른바 '뇌물수수 사건'은 우리 지도층의 정신적 부패를 웅변적으로 보여 주었다. 일부 장관부인들의 고급 옷 뇌물사건,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국세청까지 동원하여 기업체에서 돈을 긁었다는 어느 정당의 세칭 "세풍(稅風)"의혹등 맥락을 같이 하는 이 사건의 밑바닥에는 "도덕불감증"이라는 뿌리깊은 우리의 병이 자리잡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임 지사 부부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갖은 명목으로 수 천억대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과 준조세를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정치자금으로 쓰거나 개인의 치부를 한 큰 도둑들에 비하면 이들은 진짜 "송사리"다. 검찰에서는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법원에서는 이에 합당한 벌을 주어야 한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겠지만, 불교인인 나의 입장에서 바라는 바는 송사리든 고래든 감옥에서나 사회에서나 "죄는 원래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며, 마음이 멸하면 죄 역시 사라짐을 깨달아 참으로 참회하여," 한 마음 돌이키면 그들 자신이 본래 부처님과 다름없는 최상의 인간임을 깨닫는 것이다.

크고 작은 이런 사건 속에서 나는 우리의 덧없음(無常)과, 괴로움(苦)과 '나 라고 할만한 실체가 없음(無我)을 본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일어난다. 개인적으로는 임 지사가 욕심을 내었기에 깨끗하지 않은 돈을 받았을 것이고, 깨끗하지 않은 돈을 받았기에 죄를 지은 것이 되고, 죄를 지은 혐의가 있으니 포승줄에 묶이는 신세를 피하지 못하는 인과의 사슬에 매인 것이다. 부인 주혜란 씨도 인과에 따른 과보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하나도 남편과 다르지 않다. 사회적으로는 썩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정치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죄 되는 줄 모르면서 함께 죄를 지은 것이다.

나라에서는 이번 일을 기회로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일시적인 형벌이나 제도의 보완으로 인간의 마음 속에 깊숙히 자리잡은 모든 인간악의 근원인 탐욕과 무지는 뿌리뽑을 수 없었음을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는가? 우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부터 의식개혁을 해야 한다. 자기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시범케이스로 송사리 몇 잡아들인다고 부정부패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지도층이 도덕성을 회복하면 함께 하는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닮아갈 것이고 도덕적 풍토는 삼천리 강산에 널리 퍼지고 죄를 짓는 사람의 적어질 것이다.

> "부패의 근원은 탐욕과 무지이니 한마음 돌이켜야"

무엇을 기초로 도덕성을 회복하게 할 것인가? 첫째는 지도층 인사들에게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결코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선거혁명을 이루어 내고, 올바른 시민을 육성하는 자발적 시민의식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적 사회적 환경을 빨리 이루어 내야 한다. 다음으로 불교인들의 의식전환이다. 말로만 불교의 삼법인(三法印)과 사성제(四聖諦), 오계(五戒), 육바라밀(六波羅密)이 제일이라 하고 불교교리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아무리 높은 소리로 외쳐 봤자, 실천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어리석은 이의 잠꼬대와 다를 바 없다.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불자다운 불자가 되자. 해가 뜨면 어둠은 절로 물러가듯 우리 나라의 모든 불자들이 참으로 계·정·혜를 힘써 닦는다면 임 지사 부부도, 무명 때문에 고통을 고통인줄 모르고 참 즐거움인 줄 아는 우리 죄업 중생들도 인연 따라 자연스레 최상의 행복, 깨달음의 길에 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깨달음의 사회적 연기가 아닐까?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9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5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김 성 철(승가대교수) · 권 탄 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 기 종(동국대교수) · 혜원스님(동국대교수) · 윤 열 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 정 섭(금강선원이사장)
2년 교과목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교육원장) · 최 봉 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정 병 조(동국대교수) · 오 국 근(동국대교수) · 남 수 영(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김 상 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장 휘 옥(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99년 6월 15일~ 99년 7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일시 1999년 8월 7일(토) 오후 5시 (동산교육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불교계 유일의 종합잡지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여름호

지상강연 혜거 스님과 떠나는 불교진리탐구 3 - 禪강좌
곽암 선사의 십우도송(十牛圖頌)

불교계진단 10 / 불교계 실버산업의 현실
실버산업의 현황 및 불교계의 운영실태를 짚어보고 불교계 주요 노인복지시설 몇 곳을 소개한다.

최초완역 / 일연 스님의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 스님의 또 하나의 역작, 『중편조동오위』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으로 알려져왔으나 서어 민영규 선생이 일본 京都대학에서 발굴함으로써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귀중한 자료인 『중편조동오위』를 천태종 역경원장이신 이창섭 선생이 국내 최초로 번역, 소개함으로써 일연 스님의 선사상을 새롭게 조명한다.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10 / '99건축문화의 해 특집
동해를 앞마당으로 둔 절, 낙산사
낙산사는 절 자체보다는 절이 위치한 자리를 통해 더욱 빛나는 조형미를 연출한다. 관음신앙의 성지이며 주변환경과 어우러져 시야가 넓어지는 낙산사와 홍련암. 젊은 건축가 류경수 씨와 함께 새롭게 음미해보는 낙산사의 건축문화체험

특집 / 21세기 해양의 시대와 동아시아 불교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아 해양을 통해 이루어졌던 한 · 중 · 일 동아시아의 활발했던 불교문화교류의 역사적 근거를 통해 장보고를 필두로 해상을 호령하던 그 기상을 오늘에 되살려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불교의 미래를 전망해본다.
- 21세기 해양의 시대와 동아시아 불교의 미래
- 한 · 중 · 일 해상교류와 관음신앙
- 佛典 및 기록으로 보는 불교와 해양

인터넷 불교 /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현재 개설, 운용되고 있는 인터넷 불교사이트를 평가한다
-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통도사, 송광사 등이 뛰어나다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학술편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기획
근 · 현대 재가불자들 중 각 분야별로 불교활동의 현저한 업적을 남기고 타계한 선각자의 삶을 조명하여 재가불교운동의 당위성과 모범적인 불자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 역사와 禪의 만남, 황의돈 선생
- 한국 도서관의 아버지, 박봉석 선생

우리시대의 匠人 2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젊은 장인들을 찾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텃밭을 일구어가는 숨은 장인들의 숨결을 느껴보는 시리즈
- 북 장인(鼓匠), 임선빈 씨

연재소설 / 『관세음보살본행경』 평역
『산은 산, 물은 물』, 『만행』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소설가 정찬주 선생이 소설적인 구성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소설.
관세음보살 이야기 〈1〉

불교관계논저 종합색인
1998. 12. - 1999. 6.
불교 관계 각종 자료(단행본, 논문, 학위논문)를 목록으로 정리.

불교와 문화 구독 및 광고 문의 : 02-719-1855 우)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불교와 문화' PC통신 ID :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 kbpf, E-mail : kbpf@chollian.net